

새 임시국회 개회... 선거법 내일 표결 유력

여야 성탄절에도 무제한 토론
민주, 회기 단축 검토
표결 앞두고 기싸움 치열
상황따라 속도전 가능성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사용될 예정인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부터)가 송옥주, 박완주 의원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성탄절인 25일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이어갔다. 이번 임시국회 개회는 이날 밤 12시에 종료되며 필리버스터 대치도 국회법에 따라 이때 자동 종결된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는 26일 다시 시작되며 본회의 개의와 선거법 표결은 27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이 흉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이 26일까지기 때문이다. 또 필리버스터 정국의 긴장이 고조된 만큼 하루 정도 ‘열을 식힐’ 시간을 둔 뒤 선거법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4+1’ 협의체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표결에 들어가는 ‘속도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국회 회기를 짧게 정해서 회기 하나만 하거나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임시국회’ 전략을 구사 중인 민주당은 회기 설정을 기존 3일보다 더 짧게 가져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선거법 표결 처리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기 싸움은 치열해지

고 있다. 한국당이 신성한 선거법 필리버스터에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국회 본회의장은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다. 본회의장에서는 토론자로 나선 의원뿐 아니라 자리에 앉은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 표시를 하면서 때때로 고성도 오가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위상정당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비례한국당’ 결성 방침을 밝힌 한국당은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 자료 문건을 내부에서 공유했다

고 주장했다. 선거법 상정을 이끈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허점’을 노린 ‘비례한국당’ 구상에 위협을 느끼며 ‘비례민주당’ 결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한다면 한국당이 비례정당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데 민주당이 선거법을 밀어붙이며 ‘비례민주당’을 운운하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은 내부 문건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비례한국당”이라는 전례 없는 짝수로 정치개혁 후퇴는 물론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한국당의 행태에 국민은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한국당은 당장 국민개혁의 열차에 동참하라. 탐승 유효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공수처법 공방

한국당 “인지 통보” 독소조항... 협의체 “국민 호도”

여야는 25일 ‘4+1 협의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심각한 독소조항들이 담겼다고 주장했고, 4+1 협의체는 법안을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권성동·이철규·송연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수정안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는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존 ‘백색련안’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

사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독소조항을 넘어서, 수사 단서만 인지해도 무조건 공수처에 모든 정보를 넘기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종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수정안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의 재판·수사·조사업무 경력’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서 “조사 업무”를 끼워 넣어 특정 성향을 가진 변호사를 대거 공수처 검사로 임명해 ‘민변 검찰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제대로 된 재판·수사 실무는 경

험한 적이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과거사위원회,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현 정권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기 위한 의도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이에 4+1 협의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공수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어떤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독소조항’ 주장 관련, “검찰·경찰과 달리 전국적인 인적·물적 조직망을 갖추지 않은 공수처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경찰이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암장하려 한다면 공수처가 이를 방지할 권한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범죄를 인지해서 수사를 꼭 진행해 기소 단계까지 됐는데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수사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갈 수 있다면 수사를 게을리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조항에 따라 초기에 수사 주체가 결정돼 수사력 낭비가 없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완화’ 부분에 대해서 “법조경력 5년 이상 되는 자 중에서 법관을 뽑도록 한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검사들 중에서 충분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업무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역, 감사원 감사관 등을 포함하고자 한 것”이라며 “세월호 특조위는 1기가 1년, 2기가 2년 동안만 활동해 다 합쳐도 3년이라 5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는 공수처 검사로 들어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총선 라운지

최영호 “계층 격차·복지사각지대 해소”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

최영호 더불어민주당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소득하위 계층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계층격차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성탄절 전야 대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일가족 4명이 생활고를 비관하여 숨진 채 발견됐다”면서 “수많은 복지정책을 내놓



고 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은 정책적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소득하위 계층이 안정적 일자리와 적절한 생활소득을 보장 받는 것”이라며 “국회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직 광주시구의원 29명 이용빈 지지 선언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전·현직 광주시구의원 29명은 25일 “이용빈 광산구갑 예비후보와 함께 더 나은 광산, 더 밝은 광주,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용빈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번 지지선언에는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허문수 전 광주시의원, 광산구의원 김순철·나장식·박석원·김명수·정병채 전 구의원이 참여했다.



광주시의회에서는 장재성·김학실·황현택·이경호·최영환·정순애·김점기·반재신·신수정·김나윤·정무장·김광란 시의원 등 12명이 동참했다.

광산구의회에선 공병철·조영민·강장원·이귀순·김태완·윤혜영·박현석·박경신·김재호 구의원 등 9명이 함께했다.

전진숙 “총선 최대 과제는 한국당 청산”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북구를 전진숙 예비후보는 25일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뒤틀린 정당’인 ‘비례한국당’을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이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를 통한 투표행위는 기존 정당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국민들의 의사표현 행위”라면서 “한국당은 ‘뒤틀린 정당’을 만들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치졸한 행위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한국당을 비롯한 적폐세력을 정치적으로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다가오는 총선의 최대과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남재 “비례한국당 창당은 꼭두각시 위성정당”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서구를 이남재 예비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은 ‘꼭두각시 위성정당’이다”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투표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찍고,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에 투표하도록 유도하고, 선거가 끝난 뒤 합당하는 방식으로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모두 취하겠다는



꿈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례한국당 창당”은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을 넘어 헌법적 가치를 무시는 행위이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이라는 꿈수 그만부리고, 정치개혁에 지금이라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